
생체 간이식 수술 후 공여자의 합병증 및 중재적 시술의 유용성

서울 아산병원 방사선팀 방사선과

이임식, 이형진, 류명선, 고기영 M.D.

목 적 : 생체 간 공여자(donor)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과 합병증 치료에 중재적 시술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시행한 건강한 생체 간이식 공여자 3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그 중 219명은 간 우엽 절제술(right lobectomy) 또는 구역 절제술(segmentectomy)을, 167명은 간 좌엽(left lobectomy) 또는 구역 절제술을 시행하였다. 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임상적 소견, 방사선 영상검사, 간기능검사 결과 등을 추적하였다. 만약 합병증이 있으면 배액술, 풍선 확장술, 색전술 그리고 스텐트 설치술 등의 중재적 시술로 해결하였다.

결 과 : 56건의 수술 후 합병증이 52명(13.5%)의 환자에게 발생하였는데 흉막 삼출액(n=9), 담즙 누출(n=6), 담도 협착(n=6), 복강내 농양 또는 담즙낭(n=7), 동맥 출혈(n=5), 간문맥 협착(n=3), 장폐색(n=5), 창상감염(n=5), T-tube 제거 후 담즙성 복막염(n=2), 위염/위궤양(n=2), 기타(n=6)였다. 이 합병증 중 29건(52%)은 중재적 시술이 요구되었는데 배액관 삽입 또는 영상 안내하에 흡인(n=16), PTBD경로를 통한 풍선 확장술(n=4), 출혈 동맥의 색전술(n=4), 간문맥 협착시 스텐트 설치술(n=3), 내시경적 담도 배액술(n=2)이었다. 중재적 시술을 시행한 합병증은 모두 해결되었으며 시술로 인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.

결 론 : 생체 간이식 수술의 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식 공여자의 적지 않은 빈도에서 합병증이 발생한다. 그러나 공여자의 수술 후 합병증 치료에 있어 중재적 시술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료된다.